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노인복지관)	손선희	2133-7797
담 당 자	정연순	2133-7799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노인일자리)	김희영	2133-7804
담 당 자	김성은	2133-780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경로당)	남규하	2133-7708
담 당 자	이미래	2133-7811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서울시, "백신접종 한 어르신 복지관·경로당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면·활동성 프로그램 확대운영해 일상회복 지원
- 노인복지관 요가 등 대면 프로그램 재개·2차접종시 노래교실 등 참여, 음식 섭취도 가능
- 경로당 재개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접종 인센티브, 접종자 우선선발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종이증명서나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요가, 바둑, 장기 등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체력단련 같은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현재 약 40%만 운영 중인 경로당은 자

치구별로 단계적으로 재개관한다.

-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상시(실내·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5.26.)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각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해 추진된다.
 - 「'20년 서울서베이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5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자(접종 완료자)'다.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자 비율은 43%(6.3. 기준)다.
- 우선, 서울시 노인복지관(총 79개소)은 각 복지관별로 이달 1일부터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서예, 문예교육, 스마트폰 교육 같이 활동성이 낮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되어왔다.

- 1차 접종자 이상 : 요가, 통기타, 바둑·장기 같은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2차 접종자 : 노래교실, 관악기(오카리나, 해금, 하모니카 등) 강습 및 당구·탁구 등 활동성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 백신 미접종 어르신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말 전파가 낮은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백신접종 유형별 참여가능 프로그램 〉

백신접종 유형	참여가능 프로그램(예시)
1·2차 접종자	집단상담, 요가, 단전호흡, 통기타, 바둑, 장기 등
2차 접종자	노래, 관악기(오카리나, 색소폰 등), 게이트볼, 당구, 탁구, 체력단련 등 *마스크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미착용할 수 있으며, 종료 즉시 착용

※ 노인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은 상이할 수 있음

- 79개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백신접종률 증가 추세에 맞춰 7월부터 모두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1개소를 제외한 78개소가 운영 중으로, 전국 평균(58%)보다 높은 운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100% 문을 열게 되는 것.
-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 운영(가림막, 뜨위 앉기 등)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온도체크 등 방역사항을 지속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 경로당은 현재 총 3,468개소 중 13개 자치구 1,418개소(40.9%, 6.1. 기준 *전국 평균 33%)가 운영 중인데 이어, 나머지 시설도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 노인복지관과 동일하게 1·2차 접종자에 한해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차 접종 어르신은 경로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 서울시내 경로당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경로당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자치구별로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운영시간을 단축(13시~17시)하고 취식금지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다.

-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해 백신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종자 본인(1·2차)이 접종기관을 방문해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앱(질병관리청 COOV)에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도 있다.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접속해 출력

- 한편, 서울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활동 프로그램(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등 인센티브도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가선발과 내년도 참여자 선발시 백신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 해 2,526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7만 2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는 ①공익활동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시장형 ④취업알선형 4개 분야로 나누어 제공되며, 활동비는 유형에 따라 월 27만원~53만 원이 지급된다.

- 서울시는 노인일자리 특성상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같은 대면활동이 필요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어르신의 백신 예방접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공익활동형 중 6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 66%가 돌봄 관련 서비스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립감 및 우울감이 컸다. 서울시는 백신 접종 어르신들이 다시 시설을 찾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으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휴관 중인 시설에 적극 운영 재개를 독려하고,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프로그램 운영 예시 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차·2차 접종자	2차 접종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프로그램 -스마트폰교육, 서예, 영어, 한자, 일본어, 문해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프로그램 ○ 자유훈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 장기, 게이트볼 ○ 악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쿠렐레, 기타 등 ○ 도서실, 컴퓨터 연습실 자유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훈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 탁구, 포켓볼, 노래교실 ○ 악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모니카, 오카리나, 민요장구 ○ 음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하수합창단, 노래교실 - 운동·체조프로그램(레크스,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요가댄스,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별 대상자	10명 이하	15명 이하	15명 이하
시 기	'21년 4월~	'21. 6. 14일~ (프로그램별 단계적 확대운영)	'21. 7월~ (프로그램별 단계적 확대운영)
기타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유훈영 프로그램 예약제 운영 및 악기프로그램 수강신청 진행 -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coov앱 사용법, 접종 확인서 발급 방법) 홍보 및 교육 진행 - 접종 완료 회원 관리 방안 및 이용 방법 어르신 안내(홈페이지, SNS, 안내 게시판, 유선 문자 등 활용) - 접종 완료 회원 확인을 위한 별도의 스티커, 배지, 카드제작 예정 - 프로그램 예약 및 수강신청 시 접종 완료 확인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예정 - 안내 어르신 휴식공간인 휴게실, 담소실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건강하고 활동능력 있는 어르신에게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
- 사업유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25개 기관
- 소요예산 : 166,102백만원(국비 30%, 시·구비 각 35%)
 ※ 구비 매칭예산 85,526백만원 포함 시 252,628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시직속 국 30%, 시 70%)

□ 사업유형별 현황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기간	평균 11개월	10개월	12개월	12개월
근무시간	최대 월 30시간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사업 형태에 따라 자율적 근무	수요처 기준
활동비	월 27만원	월 59.4만원 (주휴,연차수당 연 145.8만원)	보조금 + 수익금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름)	수요처 기준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 없을 경우 만 60세 이상 차상위 가능, 지역상생활동 만 60세 이상 가능)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만 60~64세 차상위 우선)	만 60세 이상
부대경비	연 18만원/1인	연 53.2만원/1인	연 267만원/1인 (인건비로 월 25만원, 최대 연 250만원)	연 15만원/1인 (사업단 운영경비)
활동내용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정 방문 및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상담·교육) 공공시설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CCTV상시관제,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지원 활동) 경륜전수활동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아동·청소년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지역상생활동(시범)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반제품 및 제품 생산·조달)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 지원,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청소년시설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시니어컨설턴트, 공공행정업무지원), 기타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기타 사업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등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 등 취업처 알선